

僧服과 巫服으로 착용되는 長衫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Jangsam in Buddhist Priest's and Shaman's costumes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김은정

Dept. of col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Kim, Eun Jung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승복과 무복에 나타난 장삼의 특성 |
| II. 영산재와 굿거리 | V. 맺음말 |
| III. 영산재와 굿거리에서 착용되는 장삼의 형태 비교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paper researched and compared the Jangsam religious costume, of Buddhism in Yeongsanjae with that of Shamanism in Gutgeori. Jangsam is a full length, flaxen hemp dress used in both religions. (Ed- please amend this sentence as necessary but note that it is essential to give some description of the costume here for non-Korean readers) The religious point of view can cause Jangsam's features to differ Jangsam's mean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wearing Jangsam in both the Buddhist priest's and Shamans' costumes is to gain power from the Almighty in order to maximize the religious effect.

Second, Jangsam in the Shaman's costume features universality mixed with Buddhism and folk religion and becomes symbolic in Buddhism. As society disregards Shamanism, it has become combined with Buddhism.

Third, Jangsam for Yeongsanjae or Chukwon Gut has kept its religious specialty as a Pyoeui despite various modifications.

주제어(Key Words): 장삼(Jang-sam), 승복(Buddhist priest's costume), 무복(Shaman's costume)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Kim, Department col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575, Korea Tel: 82-62-530-1317 E-mail: kimej0234@hanmail.net

I. 머리말

일상복식이 아닌 종교복식은 종교의례에서 그 정신세계의 상징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장삼은 종교복식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사회 문화적 요건에 따라 형태변화를 가져오면서도 불교의식이나 굿거리에서 불교적 의미를 상징하는 특수복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용되어 전해지고 있다. 불교의식이나 굿거리에서 장삼이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신앙적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종교의식에서 장삼을 착용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마다 발생된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신과 밀접한 관계에서 갖는 제의적인 원리에 의해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불법승을 상징하는 객관적인 표현수단으로 장삼의 형태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상호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었다. 따라서 장삼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단순히 형태만이 아닌 내용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삼이라는 고유복식을 중심으로 불교의식인 영산재와 무속의식인 굿거리를 통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의미가 종교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여 장삼에 내포된 복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장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 동안의 복식 연구는 역사적 측면에서 복식종류와 형태의 연구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복식의 시대추이(時代推移)에 따른 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민족에 따른 횡적인 연구로 복식문화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고찰은 장삼에 관한 선행연구와 고문헌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장삼의 형태를 고찰하였다. 현장조사는 불교의식인 영산재와 무속의식인 굿거리를 참관하여 의식에 착용했던 종교복식인 장삼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II. 영산재과 굿거리

우리나라 불교복식에 관한 연구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사의 시대적 변천에 중점을 두어 장삼보다는 가사(袈裟)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신난숙, 1979. 안명숙, 1989. 이초연, 1990. 임영자, 1990. 이순덕, 1995). 김태희(1988)는 한국 공인 19개 불교종단의 승복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승복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김경숙(2000)은 아시아 지역의 가사 착용현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한미혜(1989)는 기존의 가사에 대한 연구가 경과 율에 근거하여 역사적, 유물적인 것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법식에 따라 승복 짓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초연(1990)은 한국불교의 종교의식으로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산재 승려들의 작법 무복의 복식유형과 상징성을 고찰하고 승복의 체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무속복식분야 연구는 굿거리에 따른 무복의 상징적 의미나(양미경, 1997) 거리에 따른 복식의 종류를 중심으로(조아란·조효순, 1997. 이자연, 1997. 유효순, 2000)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정숙(1981)은 만구대택굿 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의식마다 달리 입고 있는 무복의 종류와 구성 및 우리의 전통복이 샤머니즘 속에 침투되어 어떻게 착용되고 있고, 무복과 전통복과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김은정·김용서(2002)는 현대 무속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복 역시 전통복식에 근거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무복의 형태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변화 속에서도 전통성을 파악하고 그것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무복형태의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강신무복의 전통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 불교의식 영산재

불교의식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도량으로 영산회상의 제불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불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며, 부처님 전에 행하는 최대최고의 장엄한 불교의식이다. 현재 불교의식무용인 영산재는 주로 태고종 계통의 승려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산재는 영산회상의 재현에 의하여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라 믿어 영혼천도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불사 의식에서도 영산 법회를 상징한 의식을 행하면 이를 영산재라 한다(文化財管理局, 1988). 영산재를 진행할 때는 회색장삼과 백색장삼을 착용하는데, 의식에 따라 춤을 추는 거리에서는 백색장삼을 착용하고 이를 착복(着服)이라 한다. 또한 영산재는 거행하는 규모에 따라 스님들의 인원이 다르는데, 단오(음력 5월 5일)에 하는 대규모 영산재는 스님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서 회색장삼이나 백색장삼을 역할에 따라 착용하고 영산재를 진행한다. 약식으로 행하는 영산재 경우는 스님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거리에 따라 장삼을 바꿔입기도 하는데, 식이 거행되기 전에 방(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해진 장소에서 장삼을 바꾸어 입는다.

2001년 6월 25일(음력 5월 5일) 봉원사에서는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존회 주최로 세계 평화 및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영산재 의식을 봉행하였다. 봉원사에서 거행되었던 영산재 거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타종 및 시련(打鐘 侍鞞): 시련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불·보살을 모셔오는 의식으로 연을 모신다 함은 곧 그 연에 탈 왕급에 해당되는 분을 모신다는 뜻으로 회색장삼과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② 괘불이운(掛佛移運): 괘불은 야단법석 즉 야외에서 베풀어지는 법요식에 편리하도록 종이 등에 모셔진 부처님을 의미하며,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③ 복청계(伏請偈): 관음보살님의 일체중생의 고뇌를 소멸시키는 신비하고 묘한 다라미를 넘송해 줄 것을 대중스님께 청하는 의식이며,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④ 천수바라: 대중스님이 천수경을 독경하는 가운데 바라춤을 추는 의식이며,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⑤ 도량계(道場偈): 도장은 깨끗이 해 놓고 삼보천왕을 모시는 진언을 하는 가운데 나비춤을 추는 의식이며, 백색장삼을 입고 가사에 청색·황색·적색 등 3-6 가지색의 영자를 가슴 앞과 왼쪽 어깨 뒤에 세 가닥씩 여섯 가닥을 붙여 착용 한다.

⑥ 법고무(法鼓舞): 축생제도를 위한 춤으로 한쪽 복면에서 북을 치는 북소리와 태징을 맞추어 반대편 북채를 들고 북을 울리며 춤을 추며, 백색장삼을 입고 가사에 청색·황색·적색 등 3-6가지 색의 영자를 가슴 앞과 왼쪽 어깨 뒤쪽에 세 가닥씩 여섯 가닥을 붙여 착용한다.

⑦ 거불(擧佛): 부처님을 예로써 칭해 모셔오는 의식이며,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⑧ 향수나열(香垂羅烈): 삼보님의 가지 하심을 베풀어 불법승에 귀의함을 나비춤으로 추는 의식이며, 백색장삼을 입고 가사에 청색·황색·적색 등 3-6가지색의 영자를 가슴 앞과 왼쪽 어깨 뒤쪽에 세 가닥씩 여섯 가닥을 붙여 착용한다.

⑨ 사다라니(四多羅尼): 바라니의 무량한 위덕과 자재한 광명 그리고 신비한 힘으로 부처님과 대중제위로 하여금 공양하실 수 있도록 음식과 절과 양을 변하게 하는 진언을 봉독하는 가운데 바라춤을 추는 의식이며,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⑩ 영산가지계(靈山加持偈): 영산대법회 부처님, 달마님, 승가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⑪ 화청·회심곡: 불법을 글이 아닌 말로서 친근감이 가도록 우리의 가락을 붙여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살리려는 대중 불교화를 위해 만든 의식이며,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⑫ 공덕계: 제를 올린 공덕을 동참한 모든 사람과 영가제위에게 돌려 난고득락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며,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⑬ 회향(回向): 닦는 선근공덕을 다른 중생이나 또는 자신의 불과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의식으로

회색장삼에 홍색가사를 착용한다.

2. 무의식(巫儀式) 굿

굿이란 무속 제의(祭儀)로써 불행을 예방하고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본능의 욕망을 초능력적인 신령의 힘을 통해 충족하려할 때 무당에 의해 행해지는 종교의식이다(양중승, 1999). 굿은 신을 섬기는 종교적 주술예능을 행하는 신성행위를 의미하며, 강신무는 인간이던 무당이 사제자가 되어 스스로 신이 되어 신격의 춤을 춘다. 이때 굿은 대체로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습속을 말하는 것으로 무당은 신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서 인간의 고난을 신에게 의지하여 해결해 주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서대석, 1984). 남부지역의 세습무는 신이 내린 무당이 아니라 무업을 대대로 가계 세습으로 이어오고 있는 무당으로 신적 영험이나 영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봉화산 도당굿을 주관하는 무당은 신이 내려진 무당으로 신의 뜻을 감지하고 때때로 신격의 입장으로 인격을 전환하여 예언을 하고 공수를 내려준다. 일반적으로 강신무의 경우는 굿을 진행하는 무당이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리에 해당하는 신에 따라 무복을 갈아입는다.

2001년 3월 27일(음력 3월3일)에 거행되었던 봉화

산 도당굿은 도당이 있는 봉화산에서 매년 지내는 데, 서울시 상봉 중화 신내동 200여호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400여년 전통을 이어오는 대동제이다. 봉화산에서 거행되었던 도당굿거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거리부정: 모든 잡귀잡신을 물리치는 거리로 무당은 저고리, 치마를 착용한다.

② 불사거리: 당집에서 제신을 모시는 거리로 물동이에 올라서서 개개인의 평안을 기원한다. 무당은 고깔을 쓰고 백색장삼에 홍색 대대를 착용한다.

③ 제례·진적: 제단 앞에서 유식제례를 올리는 거리로 무당은 옥색도포에 청색 세조대를 착용한다.

④ 부정·가망청배: 굿당의 부정이 가시기를 기원하며 무당은 백색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착용한다.

⑤ 본향거리: 산신을 축원하고 복을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황색몽두리를 착용한다.

⑥ 상산거리: 나라를 지키던 장군을 청하여 놀려주고 마을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백색저고리에 남색치마를 입고 홍색철릭을 착용한다.

⑦ 별상거리: 별상님을 위해주고 마을 주민들의 병을 막아주고 마을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백색저고리, 남색치마, 홍색철릭을 착용한다.



<그림 1> 영산재 향화계(나비춤)



<그림 2> 도당굿(불사거리)

⑧ 신장거리: 잡신을 다스려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동다리, 남색패자, 전립을 쓴다.

⑨ 대감거리: 도당대감, 군웅거리, 봉화산 미륵님을 청해 마을을 돌보아 달라고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동다리에 남색패자를 착용한다.

⑩ 제석거리: 마을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만복을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백색장삼에 홍색대대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⑪ 창부거리: 창부님을 광대 신으로 모시는 거리로 무당은 원삼을 착용한다.

⑫ 군웅거리: 여러 장군 신을 모셔 대접하고 마을과 주민에게 해가 없도록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홍색철릭을 착용한다.

⑬ 용신거리: 옛 우물터에서 가뭄이나 산사태 등이 없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거리로 무당은 백색장삼에 홍색대대를 맨다.

⑭ 대잡이 거리: 각 마을의 액을 몰리는 거리로 무당은 홍색철릭에 머리에는 주립을 착용한다.

⑮ 뒷전: 굿을 마무리하는 거리로 무당은 평상복인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다.

III. 영산재와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장삼의 형태비교

1. 영산재에서 착용하는 승복 장삼

영산재에서 승려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신체의 율동행위를 작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불교의 식인 영산재는 작법을 의미하며 불교사상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법은 신업(身業), 즉 신체 율동행위로 불전에 공양을 드린다는 뜻을 지니고 법운과 작법에는 육체, 정신, 음성, 경합에 의한 불교 수행법이 깃들여 있다. 작법무는 바라춤, 법고춤, 나비춤, 타계춤 등 4가지이다. 영산재에서 착용하는 무복은 일반적으로 승려들이 착용하는 홍색가사와 장삼을 입게 되며, 나비춤과 타계춤을 출 때는 착복(着服)이라고 불리는 홍색가사와 백색장삼을 입고

고깔을 쓰게 된다(이초연,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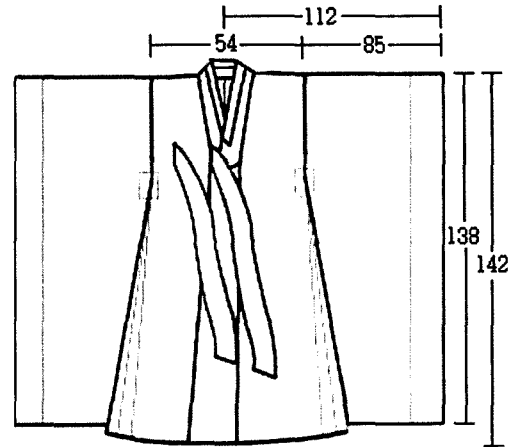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승려가 평상시 착용하는 옷을 장삼이라 하는데 영산재에서는 평상시의 장삼보다 소매가 넓은 백색장삼을 입고 가사에 청색·황색·적색 등 3-6가지색의 영자를 가슴 앞과 왼쪽 어깨 뒤쪽에 세 가닥씩 여섯 가닥을 붙여 착용하였다. 이는 육수가사(六垂袈裟)라고 하며 육파라밀(六破羅密)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 옷을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건너간다는 뜻의 범복이라 일컬으며 이때 착용하는 범복으로 나비춤을 출 때 장삼을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비춤의 본질은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된 공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계와 인간계를 연결시키는 중계적 기능을 가지면서 인간이 갖는 일상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한다(홍윤식, 1994).

영산재에서 백색장삼을 착용하는 거리는 도량계·향화계·향수나열거리로 백색장삼 위에 녹색·황색·청색의 영자를 단 가사를 거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본래 영산재 복식으로 착용하는 장삼은 백색의 무명옷감으로 만든 것이며 평상시 스님들이 착용하는 장삼보다 소매가 길어, 손이 안 보이도록 감싸주며 옷길이는 바닥에 끌릴 정도이다(이초연, 1990). 성견스님과 의 면담에 의하면 착복할 때는 속에 입는 바지·저고리도 백색을 입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에는 평상시 입는 회색의 바지·저고리를 깨끗이 손질하여 입는다고 하였다.

〈그림 3〉은 봉원사 성견스님이 착용하는 장삼의 도식화이다. 현재 영산재를 전승해 가는 봉원사 성견스님의 장삼형태는 직령교입식으로 되어 있다. 어깨에는 앞길과 뒷길에 어깨바대를 덧대고 겨드랑이에 무를 대어 기능적인 점과 실용성을 고려하였으며, 장삼소매는 일반 장삼보다 넓었다.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는 실루엣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몸 동작의 효과를 위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관하거나 세탁을 할 때 손질이 편하도록 실용성 있는 합성섬유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산재에 나타나고 있는 장삼의 구성은 전통복에 의한 고증된 형태보다는 실용성과 춤을 출 때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형태가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



〈그림 3〉 봉원사 성견스님 장삼



다. 이러한 변화는 장삼의 형태가 문서화 되어있지 않고 구전(口傳)에 의해 전해지고 있으며, 착용을 하는 스님들의 개성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2.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무복 장삼

현대 굿거리에서 강신무의 경우 대부분 무당은 평상복차림으로 시작해서 각거리의 주신을 상징하는 다양한 포로 바꿔 입었는데 불사거리, 제석거리, 용신거리에서는 장삼을 착용하였다. 제석거리는 수복(壽福)을 비는 거리로 굿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리이다. 제석거리에서 제석신은 주곡신(主穀神)이라고도 한다. 무가에서는 선면(扇面)에 세 불상을 그리고 삼불제석이라 칭하며 여무가 노래하면서 흠향을 권하는데 이것을 제석거리라고 하며 제석거리에서는 신의 상징인 중의 신분을 어원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제정일치 시대의 신권통치자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李能和,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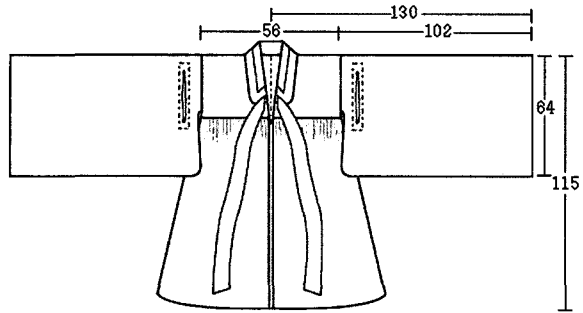
무복 장삼은 굿거리 중 신격화(神格化)를 위해 착용되고, 홍색대를 덧입으며, 머리에는 백색의 고깔을 쓴 모습으로 자손의 수명 장수나 건강을 지켜주는 불교적인 신으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무가사설에는 불교적 극락왕생 사상에 의거한 염불이

많이 불려지며, 망자의 영정 앞에 촛불을 쬐어 굿을 하는 희설같은 경우 특히 불교적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현대 굿거리는 무속적 내세관에 근거해서 굿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불교와 무속의 습합에서 빚어진 현상으로 무속의 원리와 불교가 융합하는 가운데 범칭(凡稱)으로 중이 쓰였거나 무당의 경우는 그 의미가 도태되고 불승에 한하여 쓰였을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나경수, 1982). 복식에 있어서도 장삼은 불교복식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무속에서 착용하는 무복으로 시대가 지나도 불교적 의미를 상징하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림 4〉는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장삼의 도식화이다. 구성은 상의하상으로 하상에는 철릭처럼 잔주름이 잘게 잡혀 있다. 깃은 맞깃인 합입으로 되어 있으며 깃 가장자리에는 색동천으로 파이핑이 둘러져 있다. 장삼의 진동 부위에는 아귀가 27cm너비로 트여져 있다. 신이행 무당과의 면담에 의하면 무복 장삼은 단골 만물상에서 구입하는데, 대부분 소재는 국사로 되어있다고 한다.

3. 승복 장삼과 무복 장삼의 형태비교

의식을 진행할 때 영산재와 굿에서 추어지는 춤은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무대성과 연희성을



〈그림 4〉 굿거리 장삼

가지고 의식을 진행하는 공통성이 있다. 영산재에서 백색장삼을 착용하는 거리는 도량계·향화계·향수나열거리로 백색장삼 위에 녹색·황색·청색의 영자를 단 가사를 거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굿거리에서는 불사거리에서 백색장삼을 착용하고 홍색가사를 두르고 백색 고깔을 쓴다. 이러한 영산재에서 착용하는 장삼과 도당굿에서 착용하는 장삼에 나타난 형태를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전통복 장삼과 영산재에서 착용하는 장삼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하면 치수뿐만 아니라 깃, 무(주름), 삼각무, 어깨대 등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봉원사(성전스님) 장삼의 깃은 8cm너비로 직령교입식이다. 구성은 상의하상으로 하상에는 무가 앞길에 2개, 옆길에 2개가 부착되어 있다. 어깨에는 어깨바대가 덧대어져 있는데 앞길에는 7cm너비로 뒷길에 10cm로 되어 있다. 겨드랑이에는 삼각무가

덧대어져 있다. 하지만 장삼에 구성되어 있는 어깨바대, 깃, 삼각무 형태는 비슷하나 치수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복 장삼과 무복 장삼의 형태를 살펴보면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도당굿 신이행무당 장삼의 깃 너비는 7cm이며 맞깃인 합임으로 되어 있다. 구성은 상의하상으로 하상에는 맞주름이나 무 대신 철릭처럼 잔주름이 잡혀져 있다. 수구의 너비는 영산재 장삼이 142cm이며, 무복 장삼은 64cm이다. 종교복식으로 착용했던 장삼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전통복 장삼은 상의하상으로 되어 있고, 영산재 장삼은 허리선이 절개되지 않는 직선적인 평면구성이며, 무복 장삼은 허리선이 절개되었으나 잔주름 잘게 잡혀있어 철릭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복 장삼과 승복 장삼의 구성은 비대칭인데 비해 무복 장삼의 여밈은 대칭으로 구별되었다. 전통복

〈표 1〉 장삼의 형태

장삼 형태	깃		아귀		삼각무		어깨바대		하상	색	문양
	맞깃	직령	유	무	유	무	유	무			
전통 장삼		○		○	○		○		넓은주름	흑·회색	없음
현대 장삼	승복	○		○	○		○		무 있음	회·백색	없음
장삼	무복	○		○			○	○	잔주름	백색	식물, 동물

장삼과 영산재 장삼의 깃은 좌우 비대칭형태이나 무복 장삼은 좌우대칭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산재 장삼과 무복 장삼은 소매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차이의 요인은 영산재를 전승하는 스님들은 태고종 스님들이 착용하는 장삼을 기준으로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복 장삼은 조계종 스님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산재나 굿거리에서 착용되는 장삼의 형태가 구전이나 전수에 의해 착용되는 과정에서 실용성이 가미되면서 변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장삼의 비교를 통해 형태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승을 상징하는 장삼은 서로 동일한 고깔이라는 도구를 착용함으로써 보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장삼형태에서는 승복이나 무복에서 차이는 있지만, 소도구인 고깔이나 가사를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서 불교의식이나 무속의식에서 착용하는 복식의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충은 불교신앙 자체가 민간신앙인 무속으로 바뀌는 것이고, 민간신앙인 무속은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무복 장삼을 통해 종교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V. 僧服과 巫服에 나타난 장삼의 특성

1. 불법승의 상징성

상징은 하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상황과 상징을 부여하는 사람, 전달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종교복식에서 색상이나 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일반복식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와 같은 것도 있으나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조윤진, 2000). 불교의 법의인 장삼은 단순하게 영산재나 굿거리를 주도하는 행위과정 뿐만 아니라 시각적 매개체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복 장삼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는 승복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 위엄과 종교의례의 상징성을 강화하여 굿의 주술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복 장삼은 형태의 변형은 있으나, 현재 법복으로서 상징체계가 남아있다. 무복 장삼의 경우는 다른 종교와 습합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굿거리 에 따른 장삼 착용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巫歌(무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고, 불법승의 상징적 표현수단으로 고깔과 가사를 함께 착용한다.

2. 착용역할의 보편성

착용역할에 있어서 승복 장삼이나 무복 장삼의 내적 의미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불교의식에서 승려나 무의식에서 무당은 장삼을 착용함으로써 그 자체의 거룩함으로 인해 성의 공간을 형성하고 불법승을 상징하는 역할이 동일하였다. 무복 장삼의 착용은 제석신을 맞이하여 신의 역할을 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그 거리에 하강하는 신의 상징을 알리는 기호로서 한 거리가 끝난 것을 알리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거리의 主神(주신)인 무당이 무복 장삼을 착용함으로써 신의 역할을 알리는 것이다. 불교의식이나 굿거리에서 장삼을 착용하는 것은 신의 영험력을 얻고자하는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예의로서 대접하는 춤을 거행하였다. 이 때문에 굿춤의 현상은 인간행동에 따른 것이 아닌 신의 지시, 행위, 현상으로 간주되어 장삼의 소매나 길이는 전통복 장삼보다 길어 굿을 행하는 집행자의 높은 신분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승복이나 무복 장삼은 단순하게 착용한 것 같으나 종교의식에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삼을 착용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교의식인 영산재나 무의식인 굿거리에서 동일한 의미로 착용역할의 보편성을 볼 수 있다.

3. 종교의식의 특수성

특수성이란 보편성과 동떨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보편성을 내포하면서 그것 이상의 어

면 것을 만들어 내는 상징성이 있다. 따라서 복식양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고려될 때에는 단순히 형식만이 아닌 내용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복식양식은 그 안에 변하지 않은 불변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역사성을 가진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상호 전환되고 매개되면서 언제나 공존하는 복식양식의 특성인 것이다(유수진, 1999). 승복 장삼은 승려가 착용함으로써 부처를 상징하고 무복 장삼은 무당이 착용함으로써 주신(主神)인 승려를 상징한다. 이러한 종교복식은 신성과 절대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복식과는 구별된다. 종교의식이나 의례행위 자체가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장삼은 복식이라는 주관정보다는 종교복식이라는 특수성의 이해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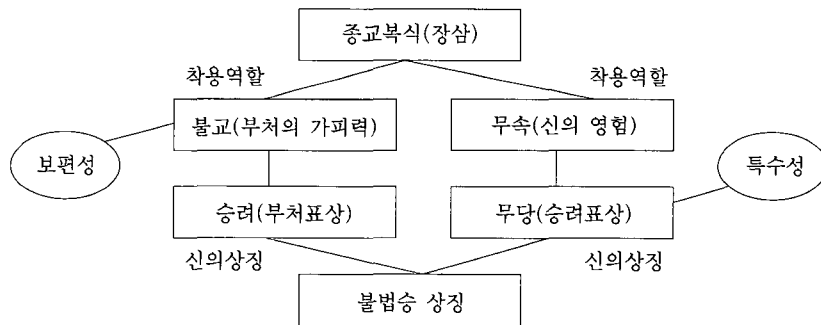
V. 맺음말

무복 장삼은 불교복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영산재나 무의식에서 착용되는 장삼의 형태가 구전이나 전승에 의해 차용되는 과정에서 실용성이 가미되면서 변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무속이 무시되는 사회·문화적 기류 속에서 무·불이 습합되는 과정을 통해 전통 장삼에 불교적 요소와 민간·신앙적 요

소를 가미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영산재 장삼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불교에 접목된 무속의 영향을 받아 장삼의 변형을 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의식과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장삼은 제작과정에서 혼용되어 형태보다는 가사와 고깔을 함께 착용하여 불법신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장삼은 신분을 나타내는 법복으로 의식을 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승복이나 무복에 착용되는 장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복식으로서 장삼은 법의의 일종으로 영산재를 전승하는 스님들은 태고종에서 착용하는 장삼을 기준으로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복 장삼은 조계종에서 착용하고 있는 장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산재나 굿거리에서 착용되는 장삼의 형태가 구전이나 전승에 의해 차용되는 과정에서 실용성이 가미되면서 변화되었다. 하지만 장삼은 신의 영험력을 얻고자하는 동일한 목적을 설정해 종교의식에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복 장삼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는 승복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 위엄과 종교의례의 상징성을 강화하여 굿의 주술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무복 장삼은 무속이 무시되는 사회·문화적 기류 속에서 무속과 불교가 습합되는 과정을 통해 전통 장삼에 불교적 요소와 민간신앙적 요소가 가



<그림 5> 종교복식인 장삼의 특성

미되면서 불법승을 상징하는 착용역할의 보편성을 볼 수 있다. 불교의식이나 굿거리에서 장삼을 착용하는 것은 신의 영험력을 얻고자하는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예의로서 대접하는 춤을 거행하였다. 이 때문에 굿춤의 현상은 인간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닌 신의 지시, 행위, 현상으로 간주되어 장삼의 소매길이는 전통복 장삼보다 길어 굿을 행하는 집행자의 높은 신분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승복이나 무복 장삼은 단순히 착용된 것 같으나 종교의식에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산재나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장삼은 전통적인 장삼에 비해 구성상의 변화는 있으나, 승복 장삼은 승려가 착용함으로써 부처를 상징하고 무복 장삼은 무당이 착용함으로써 주신인 승려를 상징한다. 종교의식에서 장삼은 표의(表衣)로서 신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신(主神)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장삼은 신성과 절대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복식과는 구별된다. 종교의식이나 의례행위 자체가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장삼은 복식이라는 객관성보다 종교복식이라는 특수성의 이해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복남(1981). 한국복식용어의 변천적 연구. 한국민속학, 14, 81.
- 김경숙, 안명숙(2000). 아시아 地域의 袈裟 着用現況에 관한 考察. 服飾, 50(8), 75-86.
- 김은정(2003). 巫服長衫의 考察. 비교민속학, 25, 545-564.
- 김은정, 김용서(2002). 강신무복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속학, 4, 5-18.
- 김태희(1988). 韓國僧服의 歷史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경수(1982). 제석무가의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能和(1991). 朝鮮巫俗考. 동문선, 215.
- 文化財管理局(1988). 靈山齋. 無形文化財 50, 9.
- 박정숙(1994). 한국무복에 나타난 전통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난숙(1978). 우리나라 가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대석(1984). 무속과 민중사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92.
- 성보문화재 연구원(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복장유물의 연구.
- 안명숙(1989). 如法衣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종승(1999). 한국의 무속. 국립민속박물관, 14.
- 양미경(1997). 한국무복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服飾, 31, 5-16.
- 이경자(1983).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42.
- 이자연(1997). 무속복식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服飾, 32, 213-224.
- 이초연(1990). 한국불교 영산재 무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덕(1995). 韓國袈裟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자(1990). 韓國宗教服飾. 아세아문화사, 34.
- 영산재도록(2002).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 10.
- 유수진(1999). 복식양식의 보편성과 특수성.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 유효순(2000). 한국 무속복식의 조형성 고찰. 服飾, 50(6), 5-20.
- 조아란, 조효순(1997). 조선시대 무속복식연구. 服飾, 34, 195-208.
- 조윤진(2000). 황해도 만구대택굿 무복의 상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 한미혜(1989). 한국승려가사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윤식(1994). 영산재. 대원사, 22.

(2003년 10월 31일 접수, 2004년 1월 9일 채택)